

# 중국, 미국산 원유 8년만에 수입

## EIA, 1월 하루 9000배럴 수출 ... 중국 수입 하루 50만배럴 증가

미국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원유를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을 인용해 4월18일 보도했다.

EIA에 따르면, 미국은 1월 중국에 하루 9000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미국은 2003-2012년 수출한 하루 3만5000배럴의 원유 중 98%를 캐나다에 수출하는 등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는 거의 원유 수출을 하지 않고 있어 중국 수출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원유 수출이 앞으로 중국-미국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의 석유 의존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애널리스트는 “만약 미국의 원유 중국수출이 증가하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런스 라우 중국은행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원유 생산 여지가 제한돼 있다”며 “다른 에너지원을 찾지 못하면 중국의 석유 의존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칼 허버그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리서치 디렉터는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증언에서 “중국의 석유 수입 수요는 매년 하루 50만배럴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2012년 12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유 순수입국가로 부상했다.

2012년 12월 미국은 석유 순수입이 하루 598만배럴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612만배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9>